

상업 영화 속 사회의제 표현에 대한 분석 (코엔형제의 영화 “위대한 레보스키(1998)”를 중심으로)

이태훈
경희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A study of expressing social agenda in feature film (Focusing on the Coen brother's film “A big lebowski (1998)”)

Tae-hoon Lee
Dept. Digital contents design, Kyung-hee Univ.

요 약 과거 영화가 예술성을 함유하며 동시대의 문학, 종교, 철학 등을 담아냈던 것과 달리 최근엔 외형적으로 흥미로운 구성과 자극되는 장면위주로 제작되고 있다. 좋은 영화란 흥미로운 스토리 밑에서 스며 나오듯 감독의 주제 메시지가 감동적으로 표현되며 동시대의 사회 면모에 대한 감독의 날카로운 시선인 사회의제를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코엔형제들의 영화를 살펴보면 아이러니와 해프닝을 통한 전형적인 블랙 코미디 장르의 오락 영화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자국의 사회문제를 영화 곳곳에 수없이 많이 삽입하며 관조적 시점에서 냉소적으로 자신들의 사회의제를 훌륭히 표현해 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영화 “위대한 레보스키(1998)”를 보면 주인공 캐릭터들의 천덕스런 모습을 통해 코믹한 내용을 창출해 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회 부적응 자를 양산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회의제를 블랙코미디로 희화화하는 등 베트남전, 포스트모더니즘, 우민화정책 등 미국 사회문제 들을 섭택스트(sub-text)로 표현하고 있는 감독의 탁월한 연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적 파급력을 가진 영화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영화산업의 진일보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주제, 사회의제, 블랙코미디, 코엔 형제, 섭 택스트

Abstract Contrary to the fact that the old films contain artistic and include contemporary literature, religion, and philosophy, latest films are produced with focusing on external interesting composition and sensational scene. A good movie emotionally express the directors' topic message exuding from an interesting story, and empathize with the social agenda which shows a sharp look of the directors' on contemporary social aspect. In the movies of the Coen brothers, it seems like an entertainment movie as typical black comedy genre through irony and happening, but in fact, it inserts a lot of social problems in the film to show that they cynically express their social agenda from a contemplative view. In their movie "The Big Lebowski (1998)", it seems like they are creating comical content through the main characters' unaffected attitude. However, it is director's excellent director of the sub-text that expresses American social issues such as Vietnam war, post-modernism and an obscurantist policy and au fond the comedy about the historical facts of mass production of social maladjustment into black comedy. We expect to contribute to make a step forward in the Korea film industry by analyzing such movies that has the cultural power of influence.

Key Words : Theme, Social agenda, Black-comedy, Coen brothers, Sub-text

Received 24 April 2017, Revised 30 May 2017
Accepted 20 June 2017, Published 28 June 2017
Corresponding Author: Tae-hoon Lee
(Dept. Digital contents design, Kyung-hee Univ.)
Email: thlee1401@empas.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 배경

오늘날, 첨단 디지털 기술의 영향으로 영화예술산업은 엔터테인먼트 적 성향이 강해졌으며 순간적 감성에 호소하는 이미지에 의한 자극위주영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과거 영화가 대중문화의 중심에 서서 예술성을 함유하며 동시대의 문학, 종교, 철학 등을 담아냈던 것과 달리 요즘 관객의 성향에 맞춰 삶의 깊이 있는 사회의제 보다는 외형적으로 흥미로운 입체적 구성과 흥분되는 장면위주로 제작되고 있는 것이다.

대중예술로서 좋은 영화란 흥미로운 스토리 밑에서 스며 나오듯 감독의 주제 메시지 (theme, root idea, sub-text, message)가 감동적으로 표현되며 영화를 통해 조망되는 동시대의 사회 면모에 대한 감독의 날카로운 시선인 사회의제를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사회의제를 통해 표현된 감독의 주제메시지가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정서의 동질성으로 공감되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인문학적 고찰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심각하고 진중한 문제를 유쾌하고 초월적인 대처로 풀어내기도 하며 인간의 유한함을 관조적 시점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한국에서 지난 한 해 관객동원에 성공을 거둔 영화의 모습을 살펴보면 유행어나 가십 등 신드롬 만 생성하는 사회적 현상뿐 참 공감대를 형성시킨 사회의제 (social agenda)의 실체는 없다는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영화가 대중예술로서 그 격과 명맥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좋은 영화의 등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중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서 오락성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의제를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오락성 못지않게 위와 같은 예술성을 동시에 드러낸 상업영화 중 그 성공적인 예를 분석, 한국영화 발전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헐리웃 작가주의 영화의 대표적인 감독인 코엔형제들의 영화를 살펴보면 아이러니와 해프닝을 통한 전형적인 블랙 코미디 장르의 오락 영화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자국의 사회문제를 영화 곳곳에 수없이 많이 삽입하며 관

조적 시점에서 냉소적으로 자신들의 사회의제를 훌륭히 표현해 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해프닝으로 채워진 스토리구조 속에 묘사된 사회의 면면에 대한 풍자와 비판은 그들 영화의 예술적 측면을 높이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들의 영화 “위대한 레보스키(1998)”을 중심으로 그 예들을 찾아 그 담긴 의미를 분석하고 드러난 사회의제 등을 통해 표현한 주제 메시지를 도출함으로써 한국영화가 대중예술로서 나아가야 할 좋은 예를 제시 하고자 한다.

2. 코엔 형제의 영화세계

코엔 형제중 형인 조엘 코엔은 뉴욕의 N. Y. U, 동생인 에단 코엔은 프린스턴 대 철학과를 졸업, 영화 “에리조나 유괴사건(1987)”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영화 “과고(1996)”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를 없다(2007)”로는 각색, 감독, 촬영, 조연상 등 네 개의 상을 받고 다른 국제 메이저 영화제에서 각종 상을 수상 하는 등 코엔형제는 삼십년간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21세기를 대표하는 작가주의감독이다 [1].

영화 “과고”는 평범한 일상 뒤에 숨은 인간의 악마적 본성을 어이없는 아이러니로 묘사하며 인간의 탐욕과 비인간성을 고발, 지독한 자본주의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코엔형제의 시선이 담겨 있다[2].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원칙조차 사라진 무법적이고 폭력적인 현실 세계의 도덕과 윤리, 정의 등에 대한 선과 악의 고찰을 다룬 영화로 가혹하고 진지한 범죄스릴러를 아이러니한 블랙코미디로 역설적으로 표현한 그들의 대표작이다[3].

이와 같이 일찍부터 코엔형제에게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이 항상 영화의 테마 중심에 있다. 아카데미 감독상을 그들에게 안긴 영화 “그 남자는 거기에 없었다.(2001)”를 구상하기 위해 떠난 미 중부시골여행에서 본 무기력한 노인의 내면에도 파도 같은 욕망이 존재할까하는 상상과 촬영 중, 이발소 안에 있는 1940년대의 다양한 헤어스타일 포스터를 보고 누가 이런 헤어스타일을 만들어 냈을까 상상하며 1940년대의 평범한 이발사 ‘에드 크레인’이라는 주인공 캐릭터를 만들어 내는 등 지극히 인간적인 구상과 접근을 통해 삶의 실존

적인 주제에 대한 묘사를 이끌어내는 그들 영화의 깊이는 사회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4].

이렇듯 그들의 영화는 피상적으로는 주제를 발견해가기가 어려우나 등장인물들의 갈등요인과 목적 등을 인간의 본능과 현 사회 속 사건이나 현상에 견주어 생각해보면 그들이 내포시킨 사회의제를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즉, 사상이나 이념의 강요가 아니라 교만 무지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세상 속 현상이나 사건과 아이러니컬하게 매치시키며 희화화하고 초월적인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블랙코미디를 발생, 무의식적으로 관객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5].

3. 영화 속에 표현된 사회의제 분석

3.1 미국의 우민화 정책

영화 "위대한 레보스키"의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를 보면 볼링을 하는 평범한 미국시민들이 등장하는데 유독 비만한 체격을 가지고 있으며 슬로우 모션으로 불룩한 배를 강조하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의 비만은 심각한 사회이슈이며 정부의 표면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 산업 불평등과 편중화, 패스트푸드 대기업들의 로비 등,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문제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우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육류 및 특히 주류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6]. 위의 장면들은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우민화 정책의 결과를 상징적으로 영화초반에 삽입, 연출의도를 보다 더 강조하는 쇼트로 사회의제 표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Fig. 1].

우민화 정책은 지배층이 기득권의 지위나 권력을 강화·안정시키기 위하여 정치에 대한 서민층의 비판력을 빼앗아두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나 생활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음란물, 스포츠, 영화 등의 오락에 쏠리게 하며 정치적 무관심을 야기 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7].

극중 주인공인 월터와 레보스키가 청년기를 보낸 1960년대 후반 미국은 급격한 산업발전과 함께 전후 베이비부머들의 소비문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때였다. 이러한 소비문화와 함께 자본주의의 물질만능문화가 생성되면서 전통적인 청교도적 윤리관의 순수함이 상



[Fig. 1] social agenda about obesity in U. S

실되어가고 매카시즘과 같은 극우 보수 세력들의 편협한 정치사상의 득세로 혼란과 불안의 연속이었으며 자국의 패권주의를 위해 명분 없이 참전한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젊은이들은 강제 징집되거나 마약과 록 음악 등 히피문화에 심취해 현실을 도피해야했다[8].

극중 과거, 급진적 사회운동을 하던 의식 있는 청년이었던 주인공 레보스키가 취업의욕조차 없이 대마초와 술에 찌들어 사는 실업자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콜로라도 등, 일부 주에서 합법화된 관대한 대마초 허용과 실현 불가능했던 실업 복지정책으로 일시적으로 포장된 우민화 정책에 의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많은 미국 시민들의 모습을 희화적으로 묘사하여 사회 의제를 표현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Fig. 2].



[Fig. 2] example of social agenda about mobocracy

미 캘리포니아 주 남쪽, 샌 페르난도 밸리는 이른바 포르노 벨리로 더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제작되는 포르노 영화의 90퍼센트(대략 1년에 1만여 편)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곳의 포르노 산업 관련 직원만 1만 2,000명, 이들이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 주에 내는 세금만 해도 3,600만 달러에 이른다[9]

매카시즘과 베트남전,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격돌하던 60년대 “Playboy”지 라는 한 권의 포르노 잡지를 시작으로 거대한 포르노그래피 왕국을 건설한 실체인물 휴 헤프너를 벤치마킹한 캐릭터로 보이는 극중 포르노 영화 총제작자인 트리혼은 사회 기여가 크다는 이유로 존경받는 지역유지로서 지역경찰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극중 그의 대사인 ‘멋진 예술성도 없어지고 이 바닥도 이젠 저질이 되었지. 최대의 성감대는 머리아!’로 사회의 악인 자신을 예술가인양 포장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과 돈 없는 백수라는 이유로 주인공 레보스키에게 비인격적인 폭행을 일삼는 경찰의 모습 등은 우민화 정책으로 독버섯처럼 자라난 음란 문화와 이를 포용하는 자본만능주의가 만연한 현 미국의 타락한 세태를 블랙코미디로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Fig. 3].



[Fig. 3] social agenda about indecent culture

이러한 코엔 형제의 사회의제표현의 의지는 영화초반 얼룩진 과거 베트남전의 기억을 망각하고 이라크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모습을 티브이 화면으로 보여줌으로써 보다 더 구체화하고 있는데 코엔형제는 베트남 전쟁의 결과로 양산된 사회 부적응자의 부정적 사회여파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영화 속 참전용사 월터를 통해 피력하고 있다.

더욱이 베트남 전쟁은 동남아의 공산화를 우려, 부패 친미 독재정권을 돕는 우를 범하며 자유와 평화를 수호

한다는 미명하에 수많은 자국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몬 명분 없는 전쟁 이었으며, 결론적으로 패전하며 5만 6천 명을 잃고 국가 위신의 추락이라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었으며 자국의 힘에 대해 자신감만 잃게 만든 전쟁이다. 더 더욱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청교도적 윤리관이라는 국가적 양심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윤리적 정체성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다[10].

명분과 다른 실상을 경험하며 심각한 전쟁 후유증을 앓는 수많은 참전용사들의 사회 부 적응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 등 사회구성원들은 더 큰 갈등을 겪게 되었다[11].

과거 급진적 사회운동가로 히피문화를 즐기는 주인공 레보스키와 참전 후유증을 앓고 있는 보수애국주의 월터의 우정과 갈등은 그래서 코엔형제가 본 영화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사회갈등이슈의 아이러니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볼링 게임 중 실수로 스텝라인을 넘은 힘없는 동료에게 충을 들이대며 ‘누가 감히 미국의 규칙에 불평을 해!’라며 격분하고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는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토록 썩은 세상을 위해 동료들이 정글에서 죽었나?’, ‘내겐 자유가 있다. 커피를 마시고 가련다.’는 친척꾸러기 같은 월터의 모습은 얼핏 사회문제아 캐릭터로 코믹한 내용을 창출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회 부적응 자를 양산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원하는 사회의제를 블랙코미디로 희화화하고 있는 감독의 탁월한 연출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극의 마지막 신에서 캔 속 친구의 유골을 맞바람에 날리며 ‘다른 훌륭했던 베트남의 젊은이들처럼 신이여 받아주소서!’라며 추모를 표하고 재를 뒤집어쓰게 되자 ‘그의 죽음이 베트남전과 무슨 상관이나!’고 화를 내는 레보스키를 포용하는 월터의 모습을 통해 순수한 내면을 가진 그들에 대한 찬미와 화해와 영속을 기원하는 감독의 염원을 담고 있다.

또한 우습게 묘사된 기계 안에서 식물인간으로 연명하고 있는 저명한 극작가의 모습과 그 아들이 철차조차 모르고 있는 모습, 지극히 어리석게 묘사된 경찰들의 모습 등은 미국의 우민화 정책과 과학을 맹신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영화 속 작은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다[Fig. 4].



[Fig. 4] satirical black comedy scenes with social agenda

3.2 미국의 자유 방임정책 비판

히피문화의 영향으로 도래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심 기조는 전통적인 정서와 개념 등에 저항하는 ‘부재에 기초한 탈 중심화’를 토대로 본질은 없고 현상만 존재하는 예술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예술작품은 하나의 완성품이 아니라 단지 과정이며 해프닝이고, 행위 일뿐 절대적 해석은 불가능하고 잘못 읽음(misreading) 자체가 바로 읽음으로 평가되기도 한다[12]. 이렇듯 상대성과 다양성에 기초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방임에 가까울 정도로 미 검증된 엉성한 예술가에 대한 비평에 긍정적인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대중예술 문화에 대한 코엔형제의 비판 또한 이 영화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액션페인팅 기법을 표방, 줄에 매달려 날아다니며 페

인트를 캔버스에 뿌리고 여성의 음부를 그려 여성 평등을 표현한다는 전위예술가나 하루 종일 시종일관 낄낄거리기만 하는 비디오 아티스트, 또 엉성하기 그지없는 엉터리 퍼포먼스 행위 예술가 등, 부정적인 시선을 담아 묘사한 예술업계 종사자들의 모습을 통해, 실제 예술적 능력이 전무한 문외한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망입 되어 예술계를 망치고 있는 현 미국의 실태를 아이러니하게 풍자하며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Fig. 5].



[Fig. 5] example of social agenda about postmodernism

3.3 사회구성원의 종교관을 비판

청교도 사상 (Puritanism)은 미국 건국의 초석이 되었고 그들의 도덕적 기본을 이루고 있는 전통적인 윤리 정신이다. 그리하여 미국인의 기본정서는 인간의 원죄론에 입각, 죄의식과 죄의 행위를 반성하며 금욕적인 생활 태도를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과 동격이며 구원자인 메시아로 칭하여 왔다[13].

이렇듯 미국인의 정서에 예수는 신성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본 영화 “위대한 레보스키”에서는 성범죄자이면서 변태인 캐릭터의 이름을 ‘Jesus’ (실제 라틴계 사회에서는 ‘헤수스’라고 발음하는 흔한 이름)로 설정하고 신성을 뜻하는 보라색 옷을 입고 마치 신적인 존재인 냥 우쭐거리는 모습으로 묘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퇴색되어가는 청교도 윤리 정신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유골함을 판매하는 장례식장의 데스크 뒤에도 성경 구절들을 배치하는 모습을 통해 허울만 남은 청교도 윤리 속 자본주의의 세태를 회화화하고 있으며 극중 월터가 ‘모세로부터 삼천년 동안 이어온 아름다운 전통’이라며 비상사태에도 안식일이니 운전할 수 없다고 하며 실제로는 모세의 구약 속 판결을 빌미로 잦은 이혼을 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적 종교관을 비판하고 있다[Fig. 6].



[Fig. 6] example of social agenda about puritanism in U. S

이는 그들이 어린 시절 받았던 유대 교육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코엔 형제의 회고에 의하면 그들의 외조부는 유대교 정통주의자로서 안식일엔 운전은 물론 전기조차 사용하지 않았고 코엔 형제도 어린 시절 토요일엔 히브리어 학교에 다녔으며, 13세엔 유대교의 성인식인 ‘바르미츠바’ (자신들의 영화 “시리어스 맨 (2013)”에서 소개된) 의식을 치렀다고 한다[14]. 이렇듯 원리원칙적인 유대 교리에 대해 그들이 가진 여러 의문들은 동생에단 코엔이 자신들 영화의 단골 여주인공이기도 한 기독교 목사의 딸 프란시스 맥도먼드와 결혼하면서 보다 더 구체화되며 영화를 통해 위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던져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15].

<Table 1> Function of sub-text in the film

character	social message	details
pony artists	criticizes against post-modernism	low class culture arrival
walter	criticizes against vietnam war	social outcast occur
levoski, trihorn	criticizes against mobocracy	peniless bum, indecent culture occur
walter	criticizes against jew's formalism	puritanism getting vanished

4. 결론

레보스키와 월터, 두 천덕꾸러기 사회부적응 자 캐릭터의 천태만상을 통해 피상적으로는 오락성 코미디를 만들어 가는 것 같아 보이나 과거 급진적 사회운동가였으나 우민정책에 동화되어 무기력하게 히피문화에 젖어있는 주인공 레보스키와 명분과 다른 실상을 경험하며 심각한 참전 후유증을 앓고 있는 보수애국주의 월터의 우정과 갈등을 보여줌으로서 당시 사회의 가장 큰 갈등이슈인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을 표현해내고 있다. 더욱이 극의 마지막 신에서 친구의 유골을 바람에 날리며 베트남 전우를 추모하고 재를 뒤집어쓰게 되어 화를 내는 레보스키를 포옹하는 월터의 모습을 통해 순수한 내면을 가진 자국민에 대한 찬미와 화해와 영속을 기원하는 감독의 염원을 담아내는 등 코미디를 통해 사회의 제를 표현하며 예술성 강한 영화로 승화시키고 있다. 또한 줄에 매달려 날아다니며 페인트를 캔버스에 뿌리며 여성의 음부를 그려 여성 평등을 표현한다는 철없는 시장 딸의 모습과 그 옆에서 시종일관 짙짙 거리기만 하는 비디오 아티스트, 레보스키 집 주인의 엉터리 퍼포먼스 행위 예술 역시 오락성 코미디를 생성해가는 것 같으나 예술적 역량의 검증이 필요한 순수예술 영역을 포스트모더니즘의 잘못된 영향으로 실제 예술적 능력이 전무한 문외한들이 방입 되어 망치고 있는 현 미국의 실태를 아이러니하게 풍자하며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포르노그래피 왕국을 건설한 실재인물을 벤치마킹한 트리horn 캐릭터가 사회 기여가 크다는 이유로 지역경찰에게 존경받으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예술가인양 포장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과 돈 없는 백수라는 이유로 주인공 레보스키에게 비인격적인 폭행을 일삼는 경찰의 모습 역시 오락성 코미디의 설정과 같으나 우민화 정책으로 독버섯처럼 자라난 음란 문화와 이를 포옹하는 자본만능주의가 만연한 현 미국의 타락한 세태를 블랙코미디로 보여주며 사회의제를 표현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화 곳곳에 반전과 반 청교도적 행태에 대한 사회의제를 깔아 놓는 등 감독의 주제 메시지를 우회적인 블랙 코미디로 잘 표현하여 예술성 강한 영화로 승화시키고 있다. 즉 외형적으로는 사회 속 군상들의 좌충우돌을 담은 코미디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영화

속 섭 텍스트(sub-text)를 살펴보면 60년대 격동의 여러 상황들을 겪어낸 청년들의 고난과 90년대 초반 그 여파로 진통과 후유증을 겪으며 변화하고 타락해 가는 미국의 모습을 고스란히 폭로, 비판하며 영화 속 사회의제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풍요로웠지만 그로 말미암아 자본만능주의가 싹트고 국가이념인 청교도적 양심을 저버리게 되며 정책적으로 기획된 우민화 정책으로 성적 타락이 시작되던 시기와 그것이 만연화된 현재의 모습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코엔 형제는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싶어 하는 '인간'과 '관계'를 무언가 코믹하고, 조금은 낯설고, 재기발랄하며 때론 켄트적인 기괴함으로 표현하면서 기존의 장르와 스타일을 넘어서서 누구도 예기치 못한 상황 전개를 만들어 내며 그들만의 스타일인 '장르 비틀기'를 완성시키고 있다[16].

이는 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찰에서 기인된 통찰력을 통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관조적이고 초월적인 블랙코미디로 묘사하여 무의식적으로 공감대를 형성케 함으로써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중심적이며 교만 무지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아이러니컬하게 회화화하여 블랙코미디로서의 톤과 매너를 매치 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코엔형제는 동시대의 사회 면모에 대한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유쾌하고 초월적인 대처로 풀어내며 사회구성원에게 공감대를 형성, 그들의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인문학적 고찰로 이어지는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적 과감력을 가진 영화야말로 한국의 영화산업의 진일보를 가능케 할 콘텐츠일 것이며 본 논문이 그 발전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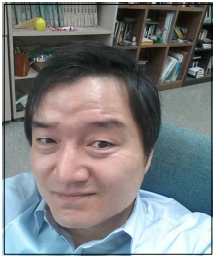
[1] Tae-hoon lee, The analysis of the irony technique for black comedy genre Film, digital design study, 14-1, P604, 2014.1. 4.
 [2] Dlester_o, The film <Fargo> review/ daily lif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lester_o&logNo=220927724198, 2017. 2. 5.
 [3] No country for old man, daum movie,

<http://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43584>, 2008.
 [4] The man, who wasn't there, the movist, the note of screening information for the new releasing, <http://movist.com/movist3d/note.asp?mid=5298&top=>, 2001.
 [5] Tae-hoon lee, The analysis of the irony technique for black comedy genre Film, digital design study, 14-1, P604, 2014.1. 4.
 [6] TB, Americans self talking about "the basic reason for most of american's obesity", <http://ryueyes11.tistory.com/9676>, 2016.12. 9.
 [7] The mobocracy, Wikipedia, Yahoo search,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B%AF%BC_%EC%A0%95%EC%B1%85, 2016. 9.13.
 [8] Filmz, <Barbie> self portrait of america in 1960's results from romance and emotions <바비> <http://filmz.tistory.com/23>, 2010.1.29.
 [9] Hugh Marston Hefner, Who's ruled daily life? The daum encyclopedia about celebrities,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54XX46000014>.
 [10] Joo-young Lee, Frustration in the vietnam war, naver encyclopedia, <http://www.mirae-n.c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6160&cid=43054&categoryId=43054>, 2009. 4. 20.
 [11] The vietnam war, shameful history for america, naver encyclopedia, intersting war story, gana public,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48537&cid=47307&categoryId=47307>, 2014.12. 5.
 [12] Daum cafe gruteogimihak, What is the post modernism?, <http://cafe.daum.net/gruteogimihak/TVO/155?q>, 2004.12. 3.
 [13] White snow282, The trens of thought in america-puritanism, neoclassicism, monotheism, romanism, the camping story of mocca & latt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hitesnow282&logNo=10035484689>, 2008.9.29.
 [14] Ga-kyoung, The coen brother's critics [the most creative genius in hollywood], <http://blog.daum.net/jegalhw/6979414>, 2010. 3.28.
 [15] information for people, yes24.com,

http://movie.yes24.com/movie/movie_person_detail.aspx?PER_ID=4681.

[16] Bonnie-Kun, nero wolf, The man, who wasn't there, (1) the misunderstanding about the coen brothers, <http://cafe.daum.net/iskystbo/9M4/1328?q=%C4%DA%BF%A3%20%C7%FC%C1%A6%20%C0%CE%C5%CD%BA%E4%20%B1%D7%B3%B2%C0%DA%B4%C2>, 2002.9.30.

이 태 훈(Lee, Tae Hoon)



- 1993년 2월 :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미술학사)
- 2000년 8월 : 미국 아트센터 칼리지 오브 디자인 (영화학 예술석사)
- 2003년 9월 ~ 현재 : 경희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영상미학, 영화 분석
- E-Mail : thlee1401@empas.com